

視點과 젠더공간

— 박경리 · 박완서 · 윤정모를 중심으로

정 미 숙*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윤정모: 몸·모순의 비체 |
| 2. 박경리: 몸·자존과 생명의 기호 | 5. 마무리 |
| 3. 박완서: 몸·자본의 척도와 반명제 | |

1. 머리말

‘본다는 것’은 말하기 이전에 오는 것으로¹⁾ 이는 세상을 보고 읽는 개개인의 ‘관점’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문학(소설)에서 화자가 보유하는 시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화자의 성차(gender), 발화자의 권위를 위한 토대, 작가의 상황과 믿음과의 관련, 텍스트의 서술적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²⁾ 이렇게 규정될 때 시점은 이데올로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존 버거(박범수 역), 『본다는 것의 의미』(동문선, 2000), p. 60.
- 2) 필자는 본인의 학위논문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서술시점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시점이 요소와 유형이 아닌 작품 전반을 관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총체적 서술전략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시점은 ‘관계의 지학’으로, 이데올로기와 기교 양쪽에 걸치는 술어이다. pp. 12-17.

기와 서술적 목소리와 서술 행위의 물질적·사회적·심리적 맥락 사이의 관련 및 이데올로기와 기교 사이의 관련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이는 시점이 곧 '관계의 시학'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근대 대표 여성작가인 박경리, 박완서, 윤정모의 소설을 대상으로 '젠더공간'으로서의 시점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³⁾ '젠더'에 대한 의식은 여성 작가들만을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한 필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즉 시점이 여성이 남성적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는 주체 설정의 문제일 때, 이것은 여성성이 자리하는 젠더 공간이 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서술 시점은 하나의 젠더 공간이며 이러한 시점이 주목하는 대상도 젠더 공간이 된다.⁵⁾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젠더 공간인 '몸'과 그에 기인한 '섹슈얼리티'의 문제, 두 축을 중심으로 세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서술 담론의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다.⁶⁾

시대와 상황, 그리고 그녀들의 계급적 위치를 초월하여 여성 혹은 여성 소설들을 관통하는 것은 '몸'과 그에 기인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였다. 몸에 대한 인식이 시점이 됨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의식과 정신활동의 담지체라는 사실과, 특히 여성의 경우 감각의 공간인 동시에 남성의 권력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⁷⁾ 이것은 일찍이 M. 푸코가 간파한 바 있듯이 몸과 그에 기인한 지배가 권력 구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⁸⁾ 여성, 그들의 몸은 그들의 타자성을 드러내

3) 본 고의 텍스트는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삼성출판사, 1985), 박완서 『도시의 흉년』(상·하 (세계사, 1993), 윤정모 『바람벽의 딸들』(문예출판사, 1985)이다. 본문에서 인용은 괄호에 면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한다.

4) 젠더공간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을 규정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권력에 관한 상상적이고 사회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런 젠더공간은 구체적인 장소나 추상적인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강금숙, 『젠더공간 구조로 본 서사체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pp. 1-2.

5) 필자는 서술시점을 통해 본 젠더공간으로 몸·섹슈얼리티·모성/여성·시간/공간·언어로 정리한 바있다. 정미숙, 위의 논문, pp. 260-263.

6) 섹슈얼리티의 정의는 『패티 로베르 사전』에 따라 '성본능과 그것의 만족에 관계된 행동들의 총체'로 사용한다. M. 푸코(이규원 역), 『성의 역사』 제 1권, (나남출판, 1990), pp. 8-9.

7) 심광현, 「육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과학』(1993, 가을), p.64.

8)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 진행되기 어려우며, 권력의 역사는 결국 국 개인이 육체를 어떻게 지배하고 공략하며 포위해 왔는지의 문제가 중심이 된 역

는 것임과 동시에 그에 기인한 대응방식을 동시에 제시하는 영역이다.

2. 박경리: 몸-자존과 생명의 기호

『김약국의 딸들』에 내장되어 있는 서술 시점은 ‘김약국’과 그의 ‘딸들’간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딸들 사이를 어긋나게 한 비극적 변수는 ‘가부장적 권위’와 ‘섹슈얼리티’의 문제이다. 이 두 축은 서술대상이 연애와 결혼을 앞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구체화된다.

먼저 용란과 한돌과의 연애 사건이다. 용란과 한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한돌과 용란의 정사 장면을 목격하고 난 이후의 김약국의 완강한 반대는 사실상 아버지의 권위를 보였다는 것 이외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용란은 이웃과 식구들에게 집안의 수치로 내몰린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술자는 용란의 천진한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① 그 여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 본능에 움직였어요. 거기 대하여 모욕을 느끼기보다 신선한 …… 표현할 수 없군요. …… 바보처럼 천진한 그의 인간성(217)

② 용빈에 비하면 용란은 평범하다. 그러나 아름답기로는 용빈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조각처럼 아름다운 코, 흰살결, … 빠마디는 고풍적이었다. 그의 눈은 수시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천사처럼 무심하고 어떻게 보면 표독스런 암짐승과 같이 민첩하고 본능적이었다.(195)

용옥은 장거리에서 몇 번인가 용란을 보았다. 한번은 장바닥에 앉아서 옥수수를 사먹고 있었다. 한 번은 과일가게에서 감을 먹고 있었다. 후줄그레한 옷차림이었다. (300)

앞 예문은 김약국의 딸 중에서 가장 이지적이고 학력이 높은 둘째 딸 <용빈>의 용란에 대한 시점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화냥년’ ‘서방질 한’ 등으로 표

사이다. 오생근,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나남, 1997) 제 17호, p.112.

현되는 용란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케이트 선교사 앞에서 하는 발화와 솔직한, 일종의 고해성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본능'과 '신선한'은 어쩔 수 없는 동의어로 만나고 있다.

용란은 한돌과 헤어진 후 결국 아편쟁이이며 성불구자인 연학과 혼인한다. 맨 아랫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용란은 자신의 결핍을 미자의 만족을 좇는 식욕으로 채워간다. 더 이상 외모와 의상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의 품행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된다. 이것은 나중 한돌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신체적 외모는, 그 사람과 다른 행위자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보통 행위를 해석하기 위한 단서로 이용되는 신체 표면의 모든 모습들-의상과 치장의 양식을 포함하여-과 관련되어 있다. 품행(demeanor)은 외모가 일상적 활동의 일반적 환경에서 개인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결정한다. 즉 품행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관습과 관련하여 신체가 동원되는 방식이다. 신체의 감각성(sensuality)은 쾌락과 고통의 기질적 처리를 지칭한다.⁹⁾

“아지매 저녁 다 됐심더.”

“나 안 목을 기다.”

“아까 배고프다 해놓고 ……”

“나 안 목을 기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먼지가 꺼멓게 앉은 크림을 손가락으로 짚히고 먼지가 묻지않은 속을 파 내어 얼굴에 찍어바른다. (351)

그들은 다시 포옹한다. 파도 소리, 솔바람 소리, 뱃고동 소리,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소리도 들려 오지 않았다. 숨가쁜 입김과 미칠 것만 같은 환희 속에서 그들은 몸부림쳤다. 서로의 숨을 마시고 그칠 줄 모르는 애무 속에 잠기는 것이었다. (353)

연학과 살면서 자신을 포기했던 용란은 한돌을 만난다는 기쁨에 달라진다. 일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화장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조절하는 첫 시도이다.¹⁰⁾ 다시 여성이 되기 시작하는 용란은 생기로 충만하다. 용란의 신체 변화와 두 사람의 애뜻한

9) Anthony Giddens(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새물결, 1997), p. 177.

10) 위의 책, p. 188.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섹슈알리티메와 결혼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남녀간의 애뜻한 사랑과 그 생명력은 가문이나 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는 데에 비판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의 열정은 결국 죽음만이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¹¹⁾

<용옥>의 경우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그 시대의 전형적인 희생양이다. 용옥은 친정 살림과 시댁 살림을 도맡고, 남편 서기두는 친정 아버지를 돕는다.¹²⁾ 그러나 기두의 마음은 애초에 용옥에게 있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용옥은 육아와 가사를 전적으로 사랑과 헌신이란 이름으로 기꺼이 도맡는다. 그리고 남편의 노동력은 친정 아버지에게 드리고 그의 열정과 육체적 욕망은 언니 용란과 술집 작부들에게 나눠줬어야 했다.

용옥의 말은 <침묵>이고 <기도>이다. 그녀에게 인간적인 갈등은 받드시 신의 이름으로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지식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종체이다. 이 경우 종교는 그때 그때의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결국 시아버지의 강간을 피하고 부산으로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통영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사고로 죽는다.

결혼의 선택과 과정의 생략은 딸딸인 <용숙>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소설 시작부터 그녀는 '과부'로 등장한다. <용숙>은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었으나 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녀는 현실의 불만을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넘어서려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망인의 삶을 다 채울 수는 없었다. 그 시대 재가도 흔치 않았고 그것을 주선하지도 않는 가운데 용숙은 유부남 의사와 정분이 난다.

11) 박경리 소설에서 불륜은 매우 에로틱하게 그려진다. 그것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영원히 결합하고 싶은 두 남녀의 본능적이고도 진실한 열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의 비극성 혹은 비극의 대물림은 예언의 결과 아닌 본능적이고 솔직한 인간의 성정을 가로 막는 인간들이 만든 이기적인 이데올로기의 사슬, 그 순환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판은 여기에 물려야 할 것이다.

12) 실제 작품에 등장하는 사위는 서기두 한 사람 뿐이다. 그는 김약국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김약국의 권한 대행자로서 실제적인 경제 주체이다.

① “마찬가지 양이가. 다른 사내한테 함분 허신하든 그건 현 계집이지. 더군다나 가짜나가 서방질을 했으니 잡탕 아이가. 여자라는 것은 인물보다 정조를 지켜야만 비싸게 값이 나가는 거란다. (228)

② “아 그 동세년만 해도 안그렇습니까? 동네방네 돌아댁김서 날보고 서방 얻어 갈 거라고 주둥이를 놀리고, 다 재산에 톱대(탐욕)가 나서 하는 소리지 됩니까?”

“니가 젊고 고우니까 하는 말이겠지, 재가 안하든 되지 뭐. 옷사람이 너 그렇게 생각해야지.” (236)

③ 통영의 여염집 여자들은 사실 별로 놀고 먹지는 않는다. 재빠르고 바지런하여 제각기 품수에 따라 앉은 장사를 한다. (생략) 그러나 저저이 돈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귀치고 유별스럽고 두고도 살림의 시샘이 많은 여자들이 주로 한다. (236-237)

④ “홍! 요조숙녀가 따로 있나? 남편이 있음 다 요조숙녀지.”
늑카리며 사내가 남겨놓고 간 허리띠를 집어 돌돌 말아서 장롱 설랍 속에 넣는다. (257)

논자들은 <용숙>의 캐릭터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표피적으로 접근한다.¹³⁾ 그러나 서술 지점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면 그녀의 의미는 사실상 용빈에 전출만 하다. ③에서 <용숙>은 서술자에 의해 “통영의 여염집 여자”로 소속된다. 한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던 서술자는 한실택의 반대에 부딪친 용숙의 ‘대구 장사전’에 대하여 은근한 역성을 들고 있다. 이 설명은 용숙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용숙은 통영 여자의 좋은 속성 -재빠르고 바지런하여, 살림의 시샘이 많은 - 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통영의 유지인 <김약국 가문의 여자>이다.

<용숙>이 김약국 가문의 여자임은 아버지 김약국과 큰아버지 중구영감 두 사람의 공통적인 속성인 ‘멋내기의 여유’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모아진다. 작품

13) 용숙과 용빈은 다소 표피적으로 읽히고 있다. ‘용숙의 탐욕은 결핍을 메꾸기 위한 순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적인 것으로 결핍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용빈의 경우는 지성으로는 운명의 힘에 대항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증명해줄 뿐이다.’ 이는 상황 속에 던져진 두 여인의 실존적 결단과 그 내포적 의미는 일체 배제한 채, 운명론적 관점을 따라 읽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황정현, 앞의 글, p. 383.

을 통하여 집안의 어른인 두사람의 취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용숙뿐이다. 이 세 사람의 이같은 속성은 결국 어떤 열악한 상황에 처해도 결코 자신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자존심 강한 성격의 공통점으로 일관된다. 또 이들간은 두 어른에게 용숙이 유독 미움을 받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죽이지 않고 화려하게 가꾸는 용숙의 용모와 행동이 두 남성에게 '요망스런 것'으로, 반감을 주고 있다. 다소곳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남성우위의 시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용숙>의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이 거슬렸던 것이다.¹⁴⁾ 알 수 있듯이 용숙은 언제나 화려하고 당당한 외모와 의상으로 타인들 앞에 등장하고, 아귀차게 재물을 모으는 노동하는 여성으로 욕심이 많은 여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성격이자 동시에 그녀의 상황을 뛰어넘기 위하여 그녀가 기꺼이 '채택하는' 것이다.¹⁵⁾

예문 ①,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용숙의 미망인으로서의 소외감은 애초에 의논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gender)인 여동생과 어머니에게조차 그녀의 결핍(Lack)은 전혀 읽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 소외와 억압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은 그녀가 '부정'(Die Verneinung)의 담론을 취하는 것일림으로 드러난다. 부정이란 억압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인 것으로 항상 일종의 인정인 것이다.¹⁶⁾ 부정을 통해 주체가 자신과의 차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큰 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용숙의 발화는 타자의 발화이다. 그래서 그것은 '텅빈 말'(parole vide)이다. 텅빈 말에서는 주체가 그의 욕망으로부터 소외된다. 이것

14) 라이프 스타일은 전통적 문화에는 적용 가능성이 많은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의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서의 선택을 내포하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프 스타일은 관행화된 습관이자 의상, 식사, 행동양식, 타인과의 만남에서 선호되는 환경 따위의 습관들 속으로 결합된 관행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따르는 관행은 자아정체성의 유동적 본성에 따라 성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모든 선택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이 탈전통적일수록 라이프 스타일은 자아정체성의 바로 그 중심과, 자아정체성의 창조·재창조와 더욱 관련되게 된다. 멘소니 기든스, 앞의 책, pp. 152-153.

15) 위의 책, p. 339.

16) Madan Sarup, Jaques Lacan, (Harvester Wheatsheaf : London, 1992), 김해수 옮김, (백의, 1994), p. 120.

은 결국 ‘꽉찬 말’(parole pleine)의 진실로 나아간다. ④에서 알 수 있듯이 용숙은 유부남 의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물의를 빚게 된다. 그녀는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다. ‘꽉찬 말’은 행위를 수행하는 말로 사실상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과의 동일시에 의하기 때문이다.¹⁷⁾ 꽉찬 발화를 획득한다 함은 곧 스스로를 대상으로 말하기를 멈춘다는 것이다. 이후 용숙은 타자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실현하며 잘살아간다. 물론 용숙에게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팔로서 그녀의 행동은 옹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결국 상황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광녀(용란)가 되거나, 힘겹게 살다가 죽고 만 용옥에 전준다면 그녀의 ‘강렬함’은 적어도 자신에게 ‘가치’와 ‘선’인 것이다.¹⁸⁾ 과도기의 시대인 점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그녀의 삶을 향한 자세는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독립과 남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가 유부남인 점을 고려할 때 결단과 절제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서술자가 용숙의 사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짐작/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용숙의 사건은 엽기적인 것이었다. 용숙은 아들 동훈이 늘 아프다 하며 여러 차례 왕진을 청하던 자에병원의 의사하고 정을 통해 오다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시동생이 쫓아냄으로써 그 많은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여서 뒤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는 것인데, 의사의 처가 시동생에게 달려와서 결국 사건은 크게 벌어지고, 의사와 용숙은 경찰서에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통영 바다를 발라 뒤집어 놓고, 이야기는 이야기의 꼬리를 물고 더욱 해피망측한 과장된 음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283-284)

위 예문은 ‘용옥’이 ‘용빈’에게 전한 편언니 용숙의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목소리인지 애매하다. ‘용빈’인지 서술자의 것인지 애매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 애매함은 결국 용숙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술자의 태도, 서술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자 용숙의 아킬레스군

17) Dylan Evans,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1996), 김종주 옮김,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pp. 117-118.

18) G. 바다이유, (최윤정 옮김), 『분학과 약』, (민음사, 1995), p.81.

인 '간통', '영아살해 사건'에 대하여 서술자는 필요했다면 전지적 시점을 투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서문에서 보였던 공적화자의 위용적 면모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용옥이 용빈에게 전한 이야기를 엿듣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추측·보고형 어미만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독자들을 향한 서술자의 이와같은 접촉 방식은 사건의 향방을 열어두려는 것이며 용숙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옹호의 자세이다. 사실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서술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사건의 중요함에 비하여 의미 부여를 적게 하려는 것으로 남겨진다. 실제 이 사건은 적어도 용숙 개인의 인생을 훼손하는 큰 장애는 되지 못한다.

서술자가 사건에 주석적으로 간섭하지 않아 해석의 실마리를 열어놓은 것은 탁월한 작가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와 세상의 통체에 맞설 수 있는 작중인물의 다성적 인물창조와 그들의 부각인 초점화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용빈>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인물 화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성>이라는 기준으로 <용빈>을 제외한 네 딸-용숙, 용란, 용옥, 용혜 - 모두를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풍요롭게 개척하기에는 '부족한 자들'로 몰아가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주체적이고 대사회적인 화자의 자격을 갖는 것은 용빈이 한 사람이다. 이는 부르디외식으로 말의 '수용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된다. 수용가능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담론 자체가 형성될 수조차 없다. 우선 어느 인물의 자격은 그 인물에 부여되는 담론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서술자의 말을 통해 말할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회적 조건이다.¹⁹⁾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용빈>의 파혼을 맞으면서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작중 인물들이 한결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새삼 또렷하게 잡힘을 알 수 있다. 여러 인물들의 생멸(生滅)을 통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다양한 인물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거스르며 한 고리로 연결하면서 노정하고 있는 담론은 <생명사상>이다.

19) Pierre Bourdieu,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 J.B. Thomson, Polity Press (1992), 禹漢鎔, 『韓國現代小說 談論研究』(三知院, 1996), p.161.

“용빈이, 용빈은 날 오해하고 있어!”

“오해?”

뒷걸음치며 용빈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올려다보는 홍섭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난, 난 지난 겨울방학 때 실수를 했었다.”

“………… ?”

“마리아가 몹시 따랐다. 나이도 어리고 …… 그만 …”

홍섭은 고개를 숙였다. 용빈도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곧은 자세로 층계를 밟고 내려간다. 달빛이 얼굴 위에 쏟아졌다. 얼굴은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으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294)

홍섭과 용빈은 오랜 교제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입맞춤 이상의 육체적 접촉은 없었다. 이는 용빈의 혼전 순결을 사수하는 기독교적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용빈과 홍섭의 결혼을 엇갈리게 하는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용빈이 선택한 종교적 절제는 또 하나의 가부장 제도의 완고한 변형으로²⁰⁾ 두 사람의 관계를 유연하게 고양시킬 수 없었던, 단단한 듯 하였으나 허술한 벽으로 드러났다. 오랜 교제기간의 절제된 만남은 홍섭과 마리아의 에로스(eros) 앞에 둘의 사이는 간단하게 구분된다. ‘형제 같은’, ‘깨끗한 이 상태’로 평가절하 되면서 ‘마리아’와 ‘용빈씨’로 나뉘진다. 억압적 이성의 독재에서 해방된 본능은 자유롭게 실존적 관계를 향하여 새로운 현실 원칙을 생성한다. 사랑과 사랑이 요구하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는 성욕과 애정의 결합에 근거한다는 것은 홍섭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현실로 드러나는 사실이다.²¹⁾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비극은 세계와 인간들과의 진정한 의미의 교감, 화합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엇갈림은 인간들간의 순수하고 본능적인 성정을 억압하고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주와 같은 전근대적인 것에서부터 계급/물질, 가부장 제도와 종교적 담론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 특히 여성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20) Herbert Marcuse(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나남, 1994), p. 66.

21) 위의 책, pp. 167-169.

많은 부분 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던 김약국의 비극적 성격은 부/모를 갖지 못한 절대적 결핍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성수가 작품에서 세상과 삶에 대한 집착과 열정을 갖지 못한 것은 극복할 대상인 '외디푸스'를 갖지 못한 탓이다. 외디푸스를 갖지 못한 김성수는 온전한 아버지일 수 없었다. 오이디푸스적 상황을 통한 성숙은 아들로 하여금 온전한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 받게하여 성숙하고 절제력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²²⁾ 이 경우 아버지는 혼돈을 뚫을 수 있는 구세주이고 자유로운 미래이다. 그러나 김약국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상황에서 애초에 모방할 아버지도 없었고 근친상간의 상상적 합일을 도모할 시원의 여성인 어머니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성수가 사촌 누이인 연순이와의 근친상간적인 상상적 사랑의 합일을 꿈꾸는 단계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함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욕과 에로스가 하나로 결합된 온전한 부부생활²³⁾을 영위하지 못한다. 그가 누구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에는 이와 같은 근원적인 결핍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김성수의 딸들은 아버지의 딸로, 남편의 소유로, 시댁의 일꾼으로, 종교의 신자(信者)로서 대상화되면서 연애/결혼의 경계에서 혼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여인들은 열정과 고뇌를 갖춘 생명체였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위치의 한 대상으로 고여있지 못했다. 사랑을 찾아 함께 하다 죽고(용란), 간통으로 내몰렸으며(용숙), 남편을 찾아 뛰쳐 나갈 수 밖에 없었고(용옥), 그리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용빈). 여기에서 박경리의 '생명사상'을 엿볼 수 있다. 각각의 생명체는 독자적인 생명의 권리를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는 엄숙한 생명체로 대상화, 소유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독자적인 생의 이유와 의미를 소유한 채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불멸적인 속성을 지닌 생명체, 즉 '영성'을 소유한

22) 위의 책, p. 73.

23) 근친 상간에 대한 터부는 죽음의 본능을 막기 위한 첫번째의 위대한 보호였다. 어머니와 아내가 분리되고,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치명적인 동일성이 해소된다. 어머니에 대한 감각적인 사랑은 목적이 제한되어 애정(부드러움)으로 변형된다. 성욕과 애정이 분리된다. 후에 성욕과 애정은 부드러운 동시에 감각적이고, 금지된 목적인 동시에 획득된 목적인 아내에 대한 사랑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위의 책, p.74.

신령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⁴⁾

3. 박완서: 몸-자본의 척도와 반명제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에 나타난 여인들의 몸과 몸의 논리는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여인들은 근대 도시의 자본, 그 현금의 가치에 압력받는 가운데 왜곡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압력을 ‘탄력’있게 넘어서면서 진실한 탐색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근대 여성의 몸의 논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주인물 여성 화자를 반(半)세속적이고도 이상(理想)적인 여대생으로 설정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박완서의 여인들과 그 애육은 근대 도시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박완서는 이를 위하여 성(gender), 세대, 계층을 구분하면서 자본의 논리에 얽혀있는 관계를 조망한다. 박완서의 몸은 근대 자본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면서 그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인들은 할머니·대고모할머니/어머니·이모·절류발이 첩/나·수희·순정·경화 등으로 구분되고 어머니와 주인물 세대의 중간 쯤에 마담 그레이스가 놓인다. 『도시의 흉년』은 ‘나’라는 일인칭 화자, 여대생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비판적으로 도회를 조감하겠다는 서술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회 속에 묻혀지는 세대 간의 시점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익명의 공간 ‘도시’는 근친상간의 상흔과 처첩간의 왜곡, 그리고 상품화된 여성의 몸이 자리한다. 이 모든 것이 봉합되고 또는 혼돈스럽게 자리하는 것은 그들(여인)이 신봉하는 가치에 따라 각기 존재하는 것이다.

할머니 세대, 즉 할아버지와 대고모 할머니간의 근친상간이 있었으나 고향을 버리고 도회로 옮겨 앉으면서 묻혀진다. 이는 할머니의 초월적 심금인 가문 수호의 의지에 따라 덮여진다. 도회는 몸과 몸의 결정적 사건과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망각을 허용하는 번잡하고 광활한 공간이다.

24)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 사상 연구”, 한국문학 연구회, 『「토지」와 박경리 문학』, (술, 1996) p. 312.

그러나 도시 공간은 그 공간의 광활한 만큼 여러 인간관계와 그들의 각기 다른 시점을 산출하는 곳이다. 어머니·이모·절름발이 첩은 중년의 여인들로서 애욕/사랑의 사선을 경계로 반목한다. 중년 여성들의 몸은 그들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매춘장사, 정부, 첩 등으로 드러난다. <어머니>는 ‘양갈보’를 쳐서 돈을 벌지만 그것이 장사인 경우는 관계가 없고 동시에 자신도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나 남편을 대접하고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모는 그저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그녀의 사랑은 계속 된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진실한 정부(애인) 역할에 충실하다. 그녀에게 있어 문제는 진실된 관계이다.

엄마에게도 이모에게도 한 가지씩의 결벽성은 있었다. 양갈보를 쳐서 돈 번 것을 경멸하는 것은 이모의 결벽성이고, 돈이 목적이 아닌 그냥 남자 여자가 목적인 남녀관계가 더러워서 못 참아 주겠다는 건 엄마의 결벽성이었고, 이 두 결벽성은 서로 경멸했고 미워했다. (상, 57-58)

여기에 두 여인에 비해 외모와 육체적 조건이 떨어지나 한 남성(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얻는 절름발이 여자, 첩이 자리한다. 아버지와 이 여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화자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나 두 사람(아버지와 절름발이 여자)의 관계는 적어도 진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년의 불구여자가 선택한 첩의 자리와 그녀가 낳은 아이의 존재도 그저 수연 엄마에게 인정 받기만을 바랄 ‘쁜’인 것으로 결국 생존의 의지처에 가깝다.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중년 여인들의 몸과 그것의 논리는 결국 삭막한 도시의 삶이 돈과 애욕을 경계로 빚어지는 한 모습임을 증명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시점은 모두 한 부분의 결핍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불완전한 관계라는 것에 그 한계가 놓인다.²⁵⁾

25) 이 소설에서 여자들은 부유하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젊은 여인(수연, 수희, 경화)/가난하나 지성은 있고 미모가 떨어지는 젊은 여인(순정), 경제력 있으나 늙고 추하고 단순한 여인(엄마, 이모)/색시하고 화냥끼를 풍기는 꽃땀같은 여자(마담 그레이스)로 단순화 되어 있다. 이처럼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은 미·추의 근거로 대비된다. 대개의 경우 아름다운 여성은 선의 입장에, 못생긴 여성은 악에 서게 한다. 특히 늙지도 젊지도 않은 여성과 그들의 애욕은 환멸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화자 세대의 젊은 여성들인 수희·경화/수연·순정으로 대립된 시점을 보인다. 전자들은 몸을 그들의 강력한 자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잘 가꿈으로써 결혼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혹은 도구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몸은 체현(體現)된 자본이고 그것을 매개로 행해지는 남녀간의 만남은 일종의 거래와 계약의 의미가 된다. 즉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구분되고 육체적 접촉 역시 정확히 계산된 만큼의 행위가 된다. 이것은 그렇게 작정한 두 남녀 모두에게 있어 똑같은 느낌이다.

① 돌아갈 땐 정원 흑백나무 그늘에서 언니에게 키스한다. 구두위로 발을 긁는 것 같은 폼판의 키스를. 세련된 그러나 정열이 느껴지지 않는 키스를. 그땐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게다.(347)

② 그것은 긴장한 그의 뿌리였다. 그것은 본디부터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드디어 구두가죽 같이 질긴 속박을 뚫고 분출한 순간의 싱싱하고도 정직한 그의 생명력이었다. … 돌발적인 정육 앞에 그의 오랜 인생대책이 얼마나 유일하게 무너질 것인가. 다만 구경만 …(344)

③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선생님하고 미리 짜고 소파수술하고 슷쳐녀수술하고 같이 했던 딸이다. … 요새 세상 돈 갖고 안되는 게 뭐 있어야지. 참 좋은 세상이야 요새 세상.

요새 세상 - 현대가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모든 가치를 삼켜 무화(無化)시키는 광경을 나는 꿈속에서 보았다. (383)

수연의 언니 수희는 공부와 지성이 수연에 비해 떨어지나 수연에 비해 그 용모와 몸이 훨씬 아름답다. 이 경우 사회적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공부에 따른 부족을 수희는 몸매 가꾸기의 노력을 더하여 전망있는 남자와의 정략결혼을 도모한다. 그녀에게 그것은 곧 출세이다. 이것은 그녀가 근대 도시 자본의 가치 사회로 단단히 편입할 수 있는 한 가능성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실패한다. ①의 예문에서 보듯이 두 남녀에게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모순의 결혼 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에게 있어서 이 모순은 끝내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진실이 있다.

문제적 인물인 ‘나’는 이 모순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보기에 따라 매우 무

있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여성은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다.

모한 행동인 자신을 부숴뜨리는 일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아이러니 하게도 근대 자본과 결합한 최첨단의 수술에 의해 간단히 처리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근대 자본의 기술(技術)적 인간 관계를 비난하는 박완서가 이 모든 근대의 혜택(소파수술과 처녀막 수술)을 거뜬하게 받는 여성 화자(여대생) 창출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근대 자본의 병폐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과감하게 ‘처녀’를 던진 그녀에게 안겨진 ‘혈혼’같은 상처가 너무 컸었다. 그러나 이는 깜썩같이 사라진다. 우선 이같은 조처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주인공의 결단을 철없는 여대생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여타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료하다. 주인공 화자가 주체가 되어 타자의 위선을 부수고 진실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선택한 자신 몸 에 대한 ‘폭력’은 ‘성스러움’이었다. 그녀 스스로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처녀’라는 물신화된 사유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이에 대한 복원의지, 즉 처녀막 재생수술도 어머니와 딸인 주인공의 시점은 확연히 다른 거시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딸의 ‘상품 가치’를 되찾는 것이나 ‘나’에게 있어서는 감기 몸살을 호되게 앓은 환자를 일상으로 활기차게 복귀하게 하는 한 ‘치료’의 단계일 뿐이다. 이후 그녀는 실타래처럼 얽여있던 가족과 연관된 생각을 끊고 온전히 자신의 삶과 사랑에 전념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것은 분리된 개체들의 육체 만큼이나 제각각 존재하는 군상들의 양태를 그대로 인정한다. 몸이 곧 세계관이고 그들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족간에도 어쩔 수 없는 심연의 간극이었다. 다른 그들은 서로에게 타자이다.

이는 몸의 주인이 자신임을 확인하고 처음에 자신의 선택을 실현한다는 출발에 그 의미가 놓인다. 그것은 화자인 수연의 기꺼운 결혼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이해 관계,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계층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26) <처녀>는 순전히 교환가치를 위한 개념으로 남성 간의 관계의 표시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자연스러운 몸의 기능을 대변하는 상태로 소멸된다. 여성 개개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교환의 매체로서 여성은 비슷비슷해지며 처녀와 비처녀 정도로 구분된다. 여성에서 어머니로의 의식화된 이행 과정은 처녀막의 파괴로 완성된다. 한 번 이 과정을 거치면 여성은 개인의 소유로, 사용 가치의 위치로 굳어지면서 남성들 사이에서의 교환으로부터 제거된다. 한국영미문학학회미니즘학회, 『페미니즘』(민음사, 2000), pp. 184-185.

자신들의 배경을 훨훨 털어버린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들이다.²⁷⁾

그 이후로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고 기만적, 정략적 결혼을 감행했던 수희와 서재호의 관계는 결국, 끝난다. 박완서에게 있어 진정성이 사라진 관계는 몸의 환멸 혹은 그에 따른 가치부재로 드러난다. 즉 애초부터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육체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희의 결혼이 실패하고 순정과 나의 경우가 성공에 이르는 것을 통하여 그의 미를 부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서술 의도가 분명해지는 것은 작품의 결구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자본주의의 화신이며 타락한 중산층의 상징인 어머니의 '피동피동한 몸'을 반신불구의 몸으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대립적 서술에 내재한 의도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박완서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내재한 파멸을 나타내고자 하며, 적어도 자본주의 근대 도시의 삶이 진정한 관계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염원한다. 그렇다면 박완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관계는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 그것은 <수연>의 선택과 관련된다. <수희>의 결혼이 계산적 결합이어서 과정에 이른 것과 다르게 <수연>은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 낸다. 그녀는 자본의 논리로 만들어진 허구의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삶을 찾는다. 수연의 집은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있는 대외 과시용의 공간이었으나 이 곳에서 사랑으로 화합할 부부와 가족은 없었다. 결국 화려한 금침이 놓여있었던 어머니의 안방은 의도화된 접근으로 다가온 최기사와 어머니와의 계산된 정사(情事)가 있었던 곳이다. 끝내 그 일은 어머니 파멸을 촉진시키는 한 실수일 뿐이었다.

이에 이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둔 화자는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주체를 세운다. '구주현'과의 만남은 자본의 논리가 만드는 유혹을 물리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도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주목된다. 화자-주인물인 수연은 도시 탈출을 통하여 희망을 찾는다. 그녀는 다시 '고아'의 입장에서 순전한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후페자식'같은 또 한 사람의 고아인

27) 앵겔스는 부르조아 계급의 연애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의 계급적 위치에 규정되는 타산적 결혼이기 때문에 진정한 연애결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오직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무산자 계급인 남녀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연애결혼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조주현,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현실문화연구, 1993), p. 12.

구주현을 만난다. ‘구주현’과 ‘지수연’은 그들의 아버지가 오랜 기다림을 접은 시골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다짐의 확산 앞에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된다.

그의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에서 독을 빨아내듯이 열렬하고 성실했다. 그런 입맞춤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건 내 생애 최고의 입맞춤이었다. 따뜻한 물에 유방까지 잠긴 것처럼 온몸이 유순하고 쾌적해졌다. (하, 390)

『도시의 흉년』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아울러 흉년의 도시는 밀려나고 풍년의 시골이 펼쳐진다. 도시와 대비되게 그려진 시골은 구주현의 아버지가 도시로 떠난 아내와 자식을 기다리며 평생을 혼자서 지켜온 곳이다. 시골에 혼자 남은 구주현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평생을 성실히 일해 집과 땅을 마련해 놓은 곳이다. 도회로 떠난 구주현의 어머니는 고단한 삶을 이기지 못하여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시골을 원편에 두어도, 시골/도시의 삶은 의리/배신으로 대립한다. 박완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 도시를 떠나는 한 여성의 탈주를 이야기함으로써 기만적인 근대 도시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4. 윤정모: 몸-모순의 비체

윤정모의 처녀작 「바람벽의 딸들」은 매춘부의 삶을 산 어머니를 조망하고 있다. 어머니/장녀의 이원적 구분을 답습하고 있는 종래의 여성서사에서 벗어나 하층계급의 매춘부 어머니를 조망했다는 것은 윤정모 소설의 서술 시점이 어느 곳에서 기반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윤정모의 서술 시점은 하층계급·훼손된 모성·상처난 어머니의 몸에 주목한다. 여기서 어머니는 결혼과 가부장적 제도라는 전형적인 두 축에서 벗어나 있다. 이로서 윤정모의 소설은 종전의 가부장적 우산 아래서의 여성 실존의 투쟁이라는 양상과는 그 전제가 사뭇 다른 것이다. 「바람벽의 딸들」과 「그 뚜장이와 아들」에 나타난 어머니는 한 번도 결혼이라는 제도적 입사식을 가질 수 없었다. 이 경우 결혼은

사회의 규범이고 권리이며 중심이 되는 제도이다.²⁸⁾ 이는 하나의 억압이다. 따라서 서술 시점은 이중적이다. 여기서 이중적이라 함은 우선 어머니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입장이 관찰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 위에 제도의 사시(斜視)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람벽의 딸들」은 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은 어머니와 딸과의 갈등의 서사인데, 이러한 갈등은 시점에 있어 그 대결의 틀을 팽팽히 유지한다. 즉 서술자의 존재는 언제나 그들을 호명하고 그들 각자의 내면을 제시할 뿐, 자신의 생각에 갇힌 그들의 내면은 서로에게 소통되지 않는다. 이는 소설 속 어머니가 딸에 의해서도 독자에 의해서도 부정(negation)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좁힐 수 없는 거리는 장모와 아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남성/사위/남편인 '그'의 시점에 비중이 점점 더해지면서 혹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는 여성/딸/아내인 '그녀'가 보인, 어머니를 향한 완고하고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들의 대화 부재를 뚫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제도의 사시적 담론이다. 여기서 하나의 아이러니는 어머니와 딸이 이러한 담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이 이 소설 속의 여성 혹은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내 놓는 근거이다.

「바람벽의 딸들」은 이처럼 딸, 사위와 함께 살게 된 어머니의 삶을 그려내는 데 서술자는 이들의 길고래운 관계를 좁은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증폭하게 되는 갈등에다 초점을 두나 서술자와 그, 그리고 경숙의 시선은 모두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어머니의 몸'과 그곳에서 끝없이 연상되는 어머니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어머니 오화인이다. 이 소설의 인물 구성이 만약 딸과 어머니 둘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좀 더 허심탄회한 그들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²⁹⁾ 그러나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녀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래서 갈등을 주목시키는 남성이 존재한다. 남성은 경숙의 의붓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다.

28) M. 푸코(이혜숙·이영목 역), 『성의 역사』 제3권(나남출판, 1994), p. 24, 190.

29) 어떤 서사체에서든 작중 인물의 특성 구성은 어떤 문화권이 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지식들에 의존하는 법이다. S.코헨·L.샤이어스(임병편·이호 옮김), 『이야기하기의 이론』(한나래, 1997), pp.109-110.

경숙에게 있어 의붓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얽힌 환멸은 끝없는 수치로 남는다. 또한 그런 어머니를 두었고 그녀의 일상을 공개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경숙은 남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역설적인 어머니와 딸간의 본능적인 연대의식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수치는 곧 자신의 수치이다. 이것은 결국 이혼을 통해서 마무리짓고 싶은 하나의 굴레가 된다.

① 요즘 들어 하루가 새삼스럽게 아들이 그리워지는 것도 다 딸자식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딸이 더 좋다느니, 딸이 패물해 컸다느니, 여행 보내 준다느니 떠벌여대지만 그녀로선 하나같이 듣기가 피로운 말들뿐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트기 자식이라도 키울 것 그랬다 싶어 날로 후회가 막급이었다. 자주 텔레비전에 나오는 트기 가수들은 얼마나 의젓하게 노래를 부르는가. 차라리 그 자식을 키웠더라면 지금쯤 안방 차지하고 앉아 큰소리 탕탕 쳐가며 며느리를 부릴 수도 있었을 텐데 …… 그리고 용돈도 듬뿍 일어 명승지 곳곳마다 유람이나 다닐 텐데 …….(156)

② 그것은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그녀가 최초로 잠은 자리를 어머니가 내놓으라고 하는 듯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이번 목표는 남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치스러운 생각까지도 스쳐 갔었다. 물론 당치도 않은 망상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어머니를 어머니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9)

③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외기(畏忌)였다. … 「성도 없는 지지바, 니 엄닌 양코베기와 헐레 붙었다메?」 동네 잔치가 있거나 강가에서 맥을 감을 때 아이들이 놀러대곤 했었다. (105-106) 달빛은 한치의 틈도 없이 길다란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안방을 지나칠 때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달빛에 드러난 모기장 속에서 어머니와 차상사가 뒤엉켜 있었다.(113)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아니다. 상식적 어머니를 요구하는 딸의 입장과 아직은 젊은,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인은 이 가정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로서 모두에게서 소외된다. 경숙은 어머니가 완전한 어머니이지 못한 탓에 자신의 어린 시절, 유아기에서 사춘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못하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보지 못한 경숙에게 성(性)은 혐오스러움이 먼저 앞서는 그것이

다. 이 모녀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조차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단절된 관계에 있다. 이어서 한 치의 양보와 이해가 없는 단죄의 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리한다.³⁰⁾

어머니를 비천체³¹⁾로 인식하는 아내와 그 아내와 장모와의 관계를 지켜보는 사위의 시선은 이 소설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그녀의 육체를 '괴물' '벌레'로 몰아가는 서사의 한 원인이다. 결국 이 소설의 어머니는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사위와 딸 사이에서 더욱 왜곡된다. 남성인 '나'는 장모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 밖으로 걸돌며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린다. 그의 첫사랑은 '춘향이'를 닮고자 했던 대학원생이었던 그녀는 '강나루'로 현재 여성시인이다. 돌연한 추억 속 여인의 설정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내포작가(서술자)의 의도는 춘향전 연구를 통해 춘향과 그 시대의 담론을 비판한 강나루의 논문을 통해 은근히 부각된다. 작품 속에 생경하게 삽입된 이 논문의 주장은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 놓여 좀처럼 화해기미를 찾을 수 없었던 소설의 방향에 물꼬를 트는 것이다.

30)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는 본래 유아기적 환상이다. 이는 우리가 어머니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또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가부장제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억압하고 어머니를 자녀에게서 소외시킨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를 실제보다 과장되고 전능하게 혹은 무력하게 다루는 한, 그리고 모성을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다루는 한, 제도적 맥락과 개인적 감정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다양한 삶과 자기됨, 동인들을 부정하게 된다. Nancy Friday, *My mother/My Self*(New York : Delacorte, 1977), p.105. Barrie thorne/Mariyn Yalom, *Rethinking the Family-Some feminist questions*(1982)(원은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pp. 77-94.

31) 비천체(Abject)는 '어머니가 가진 육체성'을 일컫는 것으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개념이다. 비천한 어머니는 남근 욕망의 대상, 즉 구멍을 가진 존경 받으면서도 혐오받는 비천한 모성적 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더 혼란스런 비천한 환상, 즉 아이가 단지 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는 환상도 도사리고 있다. K. 올리버(박재열 역), 『크리스테바 읽기』(시와 반시사, 1997), pp.80-144. 비천체는 '비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비체는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 일어나는 원형적 모성의 비객관성, 육구의 장소, 매력과 증오의 장소'가 된다. 매력과 증오의 장소가 되는 것은 '문화, 즉 신성한 것이 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추방하므로' 그 자체가 카타르시스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영미문학학회, 『페미니즘』(민음사, 2000), pp.212-213.

시대의 정절녀인 춘향은 분명 비천한 어머니를 둔 딸들의 희망이자 민중의 염원의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양반의 기품과 태도의 단아함을 갖춘 진짜 양반같은 모습이다. 그래야만 양반의 취향(habitus)에 맞아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³²⁾ 춘향은 단단한 '육체자본'과 아울러 '객관화된 문화자본'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급을 초월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계급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즉 계급초월의 상승은 이 완벽한 의사 양반의 흉내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논문은 '춘향전'은 나타난 춘향의 '아비투스'를 통해 계급/계층간의 이데올로기와 완고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른바 '춘향'은 비천한 어머니를 가진 딸이 제도적 담론의 중심인 온전한 결혼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강조하면서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호'이다. 즉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지향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상냥기질을 끝없이 지양하면서 아버지 세계로의 편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춘향과 경숙의 선택은 필연적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하층계급에서 시작하고 있는 윤정도 소설에서 딸이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공감과 연민의 시선은 애초에 배제되어 있다.

부르디외가 말한 것처럼 계급에 따라 다른 차원에 놓이는 '문화자본'은 그것에의 의미부여도 계층에 따라 나뉘지는 것이다. 높은 여자의 애육이 환멸이라는 시점은 하층계급의 것이다. 하층 계급일 경우 그것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럴 경우 화인이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남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풍요로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의식과 일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머니는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

32) 부르디외(Bourdieu)는 인간들간의 계급과 그것을 구분하는 특질로서 아비투스(habitu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habitus'는 의학 용어로 '진단의 참고가 되는 체형, 체질, 외적인 특질'을 일컫는 말로 부르디외의 몸에 대한 관심은 독특한 형태의 자본, 즉 <문화자본>을 취급하면서 비롯한다. 그는 문화자본이 세 가지의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객관화된 문화자본'(예를 들면, 이론과 지식체계의 흔적이나 실현인 그림, 책 등); 제도가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 문화자본에 독창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문화자본'(예를 들면, 일정 수준의 교육에 도달한 이들에게 졸업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 장기간 지속성을 지닌 육체적, 정신적 성향이나 습성과 같이 '체현(體現)된 문화자본'. 이를 '육체자본'이라 일컬으며 그 자체를 자본의 한 형태로 취급하였다.C. 윌링(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나남출판, 1999), pp. 186-187.

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제나 자신의 노동계급의 신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노년에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어머니는 중산층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을 소망하면서 그간의 결핍을 보상받으려 한다. 그녀의 의식과 지향은 중산층인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육체 자본(Physical capital)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딸과 사위의 시선은 냉소적이다.³³⁾

실질적인 모가장(matriarch)이었던 어머니는 가부장제와 제도의 담론에 의해 배제되었다.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여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은 매춘일 뿐이었다. 매춘은 이 경우 실존의 선택이 된다.

윤정모 소설의 리얼리즘은 어머니/여성의 경계를 교란하고, 결혼/매춘의 문제를 하층 계급인 어머니의 구체적 삶을 통하여 부각시켰다는 것에서 애정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딸이 어머니를 알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내면적 접근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서술자가 나서서 그들간의 거리를 보여줄 뿐이다. 이 팽팽한 거리는 가족들간의 혹은 사람들간의 이기적 거리이다. 그래서 남편의 울을 그리워한 어머니의 삶은 그 부단한 실패로 인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어머니 화인은 딸에게 있어 화인(火印)이다. 화인의 삶은 모성/여성의 두 축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삶과도 같다.

윤정모 소설에 보이는 어머니의 현실성은 딸/사위의 시점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딸의 분노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에서 분명히 기인한 것이나 그것은 때로는 애증의 이중적 거리이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할 말들을 늘 정리해 두는 사려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딸 정숙의 이혼선언은 구차한 어머니의 존재를 승인/배척하는 남편의 입장을 분명히 하게하는 '입장'이다. 남편인 그는 실제로 장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실행했었다. 이것은 시점의 상

33) 페더스톤은 시사하기를, <노동계급>은 몸의 쇠락을 노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신혼 중산층>들에게 늙어가는 몸은 불안의 근원이다. 신혼 중산층들은 노화와 그것의 특성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몸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상류계급>들은 노화된 걸모습을 덮고 위장할 수 있는 몸에 대한 태도를 습득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쇠락이라기 보다는 지위의 상징으로서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Featherstone, M. Leisure, symbolic power and the life course, in J. Horne, D. Jary, and A. Tomlinson (eds), Sport, Leisure and Social Relations. London : RKP, 앞의 책, p. 203.

이한 차이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충격을 통하여 그 전환을 도모한다. 윤정모는 이를 통해서 서로에게 용이하지 않으나 결국 사랑하고 함께 가야할 어머니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5. 마무리

시점은 여성이 남성적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는 주체 설정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성성이 자리하는 젠더 공간이다. 본 고의 여성 작가, 박경리, 박완서, 윤정모의 경우 몸과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여성이 세상에 소외되고 맞서있는 타자라는 사실로 공감되는 것이다.

박경리에게 있어서 여성은 제도와 이념의 권력을 해체하고 여성의 몸을 통하여 생명의 공간을 찾는다. 생명의 공간인 몸은 그 자체로 세상에 맞서는 기호이다. 따라서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관계와 그들 위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와 제도적 시선은 격차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죽음으로 마감되는 섹슈얼리티를 보인다. 즉 혼돈과 공포환희와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에로티즘의 지경을 보여준다.

박완서에게 구체적인 여성 주체는 가장 확실한 젠더 공간이다 그녀의 몸은 자기를 확인함과 동시에 타인에 이르는 매개이다. 이로부터 타자와의 관계의 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 관계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화자는 속화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맞설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몸'이 부수지는 진실도 과감히 감수한다. 이 경우 여성의 '몸'은 자본주의의 척도이자 그것을 거부하는 반명제로서의 의미를 실천하는 기호가 된다. 따라서 박완서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섹슈얼리티는 주체 복원과 재건, 독립을 위한 한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동등한 눈높이를 지향하는 남/여의 만남은 그 자체로 근대의 속물주의를 비판하는 의도이다.

윤정모에게 몸은 매운의 공간으로 소외의 극단이 된다. 결국 몸은 윤정모의 서술 시점에서 인식의 출발점이자 결코 자기화할 수 없는 이중성을 지닌 젠더

공간이다. 따라서 윤정모에게 있어 섹슈얼리티는 환멸이다. 이 환멸은 장녀 모녀의 설정에서 비롯한다. 이것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기형적 적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환멸은 낭만적인 사랑과 온전한 결혼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여성 화자의 가부장적 질서로의 편입을 노정하고 있어 그 첨예한 대립의 진실은 왜곡된다.

참고문헌

- 강금숙, 『젠더공간 구조로 본 서사체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달란 에반스(김종주 옮김), 『라캉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마단 사렘(김해수 옮김), 『알기 쉬운 자끄 라캉, 백의』, 1994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1권, 나남출판, 199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3권, 나남출판, 1994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삼성출판사, 1985
박완서, 『도시의 흥년』상·하, 세계사, 1993
베리 쏘온, 데릴린 알람(권은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1991
스티브 코헨·린다 사이어스(임병권·이호 옮김), 『이야기하기의 이론』(한나래, 1997)
심광현, 『육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과학』, 1993, 가을
심원섭, 『박경리의 생명 사상 연구』, 『토지』와 박경리 문학』, 숲, 1996
앤터니 기든스(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오생근,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나남, 1997
우한용, 『한국현대소설 담론연구』, 삼지연, 1996
윤정모, 『바람벽의 딸들』, 문예출판사, 1985
정미숙, 『한국 근대 여성소설의 서술시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조르주 바타이유(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89
조르주 바타이유(최윤정 옮김), 『문학과 악』, 민음사, 1995
조주현,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1,
현실문화연구, 1993
존 버거(박범수 역), 『본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2000
켈리. 올리버(박재열 역), 『크리스테바 읽기』(시와 반시사, 1997)
크리스 설링(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9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민음사, 2000
허버트 마르크وزه(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 1994

Abstract

The Point of View as Gender Space in Korean Modern Women's Novel

Jeong Mi-Sook

The point of view in women's novel is the problem of self-establishment which the way how the women shows the world in phallogocentric world. So this is 'The gender space' which women's identity is located. 'The gender space' means not only defining biological sex but also executing fantastic, social mission. Following this definition, narrative point of view and the object that are focused the point of view are gender space. In this paper, women writer's works appear the problem of 'body' and 'sexuality' in common. It can be explained the reality which women are the others who are overlooked and objected.

For Park Kyeong-li's body is a sure mechanism against the ideology of social convention. In the trend sexuality shows us the aspect of eroticism.

For Park Woan-seo's body is a measure of late capitalism and plays a role of anti-thesis, in which contends pure love-affairs and marriage away from the logic of secular class.

For Yun Jeong-mo's body is a space for prostitution, through which she criticizes two axes, patriarchy and capitalism and shows us an irony resulting in alienation.